

화제의 신발

성불화 롬비니 신발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



남여공용 성불화롬비니

갑신년 롬비니 선물로 부모님 건강장수 기원

롬비니는 석가모니 부처님 고행이름

세상에서 이렇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 있을까? 성불화롬비니를 신는 순간 누구나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최첨단 신발과학의 눈으로 볼 때는 물론 일반인들 까지도 감탄과 찬사를 받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에 사는 공무원 3씨는 광고를 믿지 않자 10년 이상 권점으로 활보할 수 없다고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신발이라도 가볍고 편안한 신발을 사드리려고 하면 성불화롬비니 신발이란 신문 기사를 읽고 속는 셈치고 구입해 드린 것이 지금은 1km 이상 가볍게 걸을 수 있으며 활동도 한다고 한다. 서초구에 사는 P씨는 신발이 너무 가볍고 편해 1족을 구입했으나 혹시 생산이 중단되면 어쩌랴 해서 평생 신으려고 3족을 더 구입했다 할 정도로 가볍고 편안한 최고급 신발로 평가 받고 있으며 여의도에 사는 개신도 권사도 절에 다니는 친구가 신은 것을 보고 너무 좋아 종교를 떠나 사신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빅 사용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대안이 가볍고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롬비니 신발은 최첨단 신소재와 20만 원대 신발에만 사용하는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빅을 사용했으며 밑창은 알프와 같이 초경량 폼프그림을 개발하여 접지력과 발모터를 강화했고 눈 비올때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탁월하며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산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발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성을 갖추었다. 단자인대에서는 병상부 또는 캐주얼룩에도 잘 어울리게 제작했으며 발자국들의 사용불감시, 또는 성질 순례와 해외여행, 등산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과학적이고 인체공학적인 신발이다. 성불화롬비니는 남여공용으로 225mm-285mm까지 사이즈 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준다. 가격 88,000원
문의전화 080-330-7555
동영 906-12-369914 김현석

갑신년 스님께 선물은 만행화



스님을 섬기는 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라 했다. 눈을 돌려 걸 주변에 관심을 갖고 보면 너무나 어려운 스님, 노후에 거처가 편치 않은 스님, 병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스님 등 가슴 아픈 분들이 걸 주변에는 많이 있다. 영하의 추운 산속에서 점점고무신 하나로 겨울을 보내는 스님께서 동상이 걸려 고통 받는 스님도 계시고 그것이 고행이라 생각하고 수행하는 스님도 있다. 불자라면 꼭 자기가 모시는 스님이 아니라도 깨끗한 마음과 착한 정성으로 따뜻한 자비의 신발을 보시한다면 전생에 지은 무량업장을 녹이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다. "복중에 제일 가는 복이 인연복"이라 했다. "작은 불자라도 마음을 열면 무량대복" 된다고 했다.

120년만에 찾아온 갑신년이 스님전용 신발인 만행화를 보시 한다면 무량업장을 녹이고 무량대복을 받

을 것이며 스님께는 건강장수하여 원대한 포교 원력을 가지고 중생구제에 힘쓸 것이다. 스님전용 신발 만행화 롬비니는 (주)롬비니에서 스님의 승복 색상에 맞춰 풀이있게 제작된 최고급 신발로 대단히 가볍고 편하며 장시간 만행에도 피로함을 극소화 시킨 신발과학의 결정체라고 회사 관계자는 자부한다. 만행화신발은 스님의 건강을 위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발산되며 추운 겨울에는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땀을 배출하는 기능과 눈 비올때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탁월하게 제작된 최고급 기능성 신발이다. 가격 88,000원
보시 또는 문의전화: 080-330-7555
동영 906-12-369914 김현석

갑신년 名品특집

갑신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특별사은품 증정



삼고 금강저(金剛杵)

삼고 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밀교의 만다라에는 금강부의 여러존상이 모두 금강저를 가지고 있으며 금강저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치며 부처님의 지혜를 받는 성구로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를 뜻한다.

갑신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신발과 지갑, 향로, 벨트, 구입 불자님께 순금도금한 삼고 금강저(사진)를 특별증정한다.

왜! 삼고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1년 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남치, 살인, 간음, 강도, 유괴, 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삼고 금강저는 부처님의 법구 중 법구로서 다져진 화를 미리 피하게 하고 악한 사람을 쫓으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얻어 승리하여 가족을 지키고 자신을 지켜주는 불경에 입각한 수호신인 삼고금강저를 갑신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신발과 지갑, 향로, 벨트, 구입하는 분께 평생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도금한 삼고금강저를 특별증정 한다. 여성께는 핸드백 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도인과 이연이는 주머니속에 항상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최고급으로 제작했다.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인 향로

'소원성취 향로' 화제집중

99% 청동으로 만든 국보급 명작



관음예술원

불경에 입각한 성구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관음 예술원에서 불교의 관음 신앙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손모양과 지물을 향로로 제작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고급 청동으로 만들어진 '관세음 보살 여의주 액원수 수진인 향로'는 불경에 입각해 영적으로

제작된 국내 향로 가운데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세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관세음보살 수진인은 관세음보살의 손모양과 손에 들고 있는 지물을 말하는 것으로 변역과 소원성취의 비결을 담고 있다. 실제로 관세음보살수진인은 그동안 큰 스님들을 통해 그림으로 그려져 불자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하는 긴급비방으로 전해져 왔다. 사상이 어려울 때의 향로의 비방은 동쪽, 중대한 시련을 앞둔 함곡의 비방은 서쪽, 자녀를 기다리는 임태의 비방은 북쪽, 승진과 취임의 비방은 서쪽, 병고 회복의 비방은 북쪽, 개업준비중인 성공 사업기원의 비방은 동쪽, 인연의 짝을 찾는 비방은 동쪽, 병적 투쟁 승소의 비방은 서쪽, 가정의 위기 또는 애정회복의 비방은 북쪽 등 비방에 따라 향로를 놓고 진언, "올 바이라 바디라, 올 바이라 미라야 사바하,"를 외치며 가지가지 보배 재물이 들어오고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진 다 했다. 출시한지 100일도 안된 관세음보살의 성상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패왕기만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이들이 5대에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집이 팔리고, 가격 1,2,3,4등이 모두 당첨되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최고의 향로로 평가 되고 있다. 관세음보살 수진인향로는 99% 청동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 들어오는 향로는 만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황색꽃이 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음수진인향로는 청동이나 은도 변질되지 않으며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예술품 또는 제하시 사 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우체국 택배로 정정액 보내드립니다. 가격 295,000원 2.7kg, 높이 22cm, 넓이 17cm, 무게 295,000원
문의080-330-7555 동영 906-12-369914 김현석

새상품 살배는 신발 스타필드 인기

독일 뮌헨 다이어트 기능대회 대상수상



척하지 뒷굽이 15° 공중에 떠있는 과학적인 신발

'살배는 신발' 국내외 인기폭발 하루1시간 운동으로 월 2kg빠져

미국 일본 한국 등 3개국에서 발명특허를 받고 독일 뮌헨 다이어트 박람회에서 대상상을 수상한 '살배는 신발'은 스타필드 국가 내 시판에 들어가 선종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신으면 살이 빠지는 신발"을 개발한 부산 삼덕동상(주)는 초기에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지에 전량 수출, 단기간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세계적인 기능성 신발 메이커로 부상했다. 특히 독일에는 이 신발이 비만요법기로 수출되고 있다.



운동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됐다. 이 신발은 하체와 허리를 날씬하게 탄탄하게 단련시키거나 허리를 받듯하게 공회잡는데 탁월한 효과와 있으며,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도입됐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 고민하는 이나 다리에 힘이 없고 복부비만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발의 이용을 권하고 있다. 수출의 날 대통령상과 산업경쟁력상도 받은 스타필드 신발은 "마라톤 선수들이 밤의 일부 뿐으로만 한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며 "땀을 흘릴 때에 까치발식 걸음으로 복부와 다리에 힘을 쏟도록 한다"는 원리를 원용한 것이다. (080-555-3080) 부산=이영자 기자 yj3119@hot.co.kr



금강저 건강벨트

부처님의 불력으로 남자들의 승리와 안전의 수호신



협한세상 믿음의 호신용으로 인기

국내 최대의 불교성구 제작 전문 업체인 관음예술원에서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인 금강저 벨트를 제작하여 남자들이 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불교에서 금강저는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악을 물리치고 화를 쫓으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각자 소망하는 소원이 성취되고 승리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법구다.

부모님께 건강의 선물!

남편에게 승리의 선물!

학생에게 지혜의 선물!

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금강저는 부처님의 불력으로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치며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로 불경에 입각하여 제작된 승리의 수호신인 금강저를 벨트로 부착하여 남자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게 제작한 것이 돋보여 직장인들 물론 중, 고등학교 학생과 수험생, 경찰관, 군인 등 믿음의 호신용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금강저 벨트에서 발산되는 불의 원적외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하리와 장이 약하신 분은 착용하면 튼튼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금강저 자동벨트는 실용신인 및 건강벨트도 특색을 띤 국내 벨트 중 기능성을 가진 최고급 자동벨트로 평가되고 있다. 출시기념으로 여성분들 핸드백에 넣어 자신감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도금한 삼고금강저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가격 65,000원
문의전화080-330-7555
동영 906-12-369914 김현석

부처님 복지갑

東西南北의 福을 모은 佛力!



120년 만에 온 갑신년

음담이 낀 갑신년은 지금으로부터 120년전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해로 정변의 기운이 넘치는 해다. 역사적으로 서방의 기가 동방으로 옮겨 정치는 격동기를 맞을 것이며 민심은 구심점이 없어 방황하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서방의 기가 동방으로 흘러 괴질과 풍토병이 만연하여 기가 약한 사람은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해로 누구에게나 갑신년은 좋은 해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갑신년은 집을 잃고 방황의 해다. 정치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돈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민심도 집이 없어 방황하고, 건강도 병환하지만 갑신년 후반기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집을 찾아 안정이 된다. 옛부터 갑신년에는 누구에게나 삼재를 당하는 해와 같다고 하여 화를 쫓고 악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고 지혜를 얻기위해 부처님 공양수 또는 법구를 집안에서 또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삼재를 물리치고 건강장수 하여 복을 받는다고 했다. 특히 갑신년에는 돈이 집을 잃고 방황하는 해라 하여 금의 해라 하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 지갑으로 바꾸면 방황하는 돈이 새 지갑으로 들어오

롬비니 福 지갑

는 해로 120년만에 온 갑신년이다. 부처님 지갑인 롬비니복지갑에는 불교에서 유일하게 동서남북의 복을 부르는 부처님 성구 卍자 지갑 정면에 넣고 갑신년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건강을 지키는 금강저를 지갑 내부에 순금도금하여 넣었으며 부처님 꽃이며 소원 성취꽃인 백연화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순간부터 자신감을 갖게했다. 부처님 지갑인 롬비니복지갑은 명산인 소재에서 부처님께 정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드린 열의의 지갑으로 출시된지 1년동안 안티즌 증가가 정되고 어려운 사업이 풀리는 등 수많은 화제를 낳은 지갑이다. 롬비니복지갑은 안과 백이 똑같은 최고급 천연 양가죽으로 내부모 기공지갑과 비교가 될 수 없게 대단히 잘 구며져 있으며 국내 최고급 지갑으로 인정받고 있다. 남녀를 위한 지갑은 55,000원, 여성용복지갑은 95,000원에 시판하고 있으며 전화 신청하면 보내준다.
전화080-330-7555
동영906-12-369914 김현석